

고용률은 노동시장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

남재량*

장시간 근로로 널리 알려진 한국에서 단시간 근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980년대 초 1주일에 54시간 이상 일하는 장시간 근로자가 취업자의 절반을 넘었으나, 지난해 10% 남짓한 정도로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 비중은 0.5%에서 8%로 높아졌다. 근로시간 구성이 이렇게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지표들은 과연 유용할까?

1주일에 50시간 일하던 사람들이 모두 1시간만 일하게 되었다고 하자. 근로시간이 1/50로 줄어든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에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활용되는 정도를 잘 측정하는 것인데, 이러한 고용률이 과연 목적에 부합할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고용률이 1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모두 똑같은 취업자로 간주하여 지표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현실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거나 잘못 측정된 노동력 활용 지표는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의 왜곡과 함께 정책 오류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단순하여 측정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 고용률이 근로시간 등 노동강도와 그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고용지표가 바로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 FTE) 고용률이다. 이는 전일제(Full-Time), 예컨대 주당 40시간 일하는 대표적인 개인을 상징하고 그러한 개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고용률이다. 주 40시간을 전일제 근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20시간이나 60시간 일한 경우를 각각 0.5명과 1.5명으로 간주하여 지표를 산정한다. 물론 전일제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하면 된다.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새로운 고용지표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의 FTE 고용률을 공지하고 있다.

한국의 근로시간 구성 변화는 매우 급격하다.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와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 외에도 40시간을 전후한 36~44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지난 20여 년 동안 30%포인트 가량이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것인가 여부에 따라 고용률은 그 크기와 움직임 모두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jrnam@kli.re.kr).

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순 고용률과 전일제 환산 고용률 가운데 어느 것이 노동력 활용 정도를 더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엄밀한 측정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 두 고용률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들, 대표적으로 GDP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고용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번 특집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아가 특정 노동시장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 서로 다른 고용률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분석해 보아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중요한 정책 변화의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단순 고용률을 계속 그대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일제로 환산한 고용률을 사용할 것인지를 문제는 중요할 수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사용하는 고용률이 무엇인가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겨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고용률은 전일제로 환산할 경우 어떤 변화를 보일 것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편으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단시간 근로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구성변화를 반영하는 고용지표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대두될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특집의 논의가 근로시간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KLI**